

이 모든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고린도전서 1:1-9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커피나 차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차를 좋아하지만, 커피는 정말 사랑합니다. 커피의 향, 맛, 자극, 그리고 편안함까지 있습니다! 아침 커피는 저에게 "좋은 하루가 될 거야!!"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가족 또는 친구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것은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저는 커피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캐롤이 좀 전에 9절을 읽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는 단순히 차나 커피를 함께 마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단어는 "공동 연합" 또는 "공동 참여"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공통된 무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1.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연합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을 더 설명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1장 첫 아홉 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슬라이드). 예수 그리스도가 9번 언급되고, 암시적으로 10번째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매 구절마다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 1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 2절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 2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하나라고 말합니다.
- 3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습니다.
- 4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 5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말과 지식을 받습니다.
- 6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에서 확증되었습니다.
- 7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 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날에 흠 없이 서게 하실 것입니다.
- 9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중심이자 본질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아를 본질로 삼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첫 아홉 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10번 이야기하고 자신에 대해 1번 언급합니다. 아마 이 비율은 우리가 삶에서 본받을 만한 비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언급한다면, 예수님에 대해 10번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의 대표자, 즉 사도로 칭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작적인 권력 행사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삶과 글을 연구해 보면, 바울은 그의 사도직을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의 삶, 그의 글, 그의 말씀을 통해 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의 사도직이 권능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입니다.

바울은 55년경에 에베소에서 사역 파트너인 소스데네스와 함께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이 형제는 아마도 고린도의 유대 회당의 전임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재판소 앞에서 그의 믿음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소스데네스를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는 복음의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바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로마에서 온 천막 짜는 친구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51년경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이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은 서로 다른 민족적 배경(로마인, 그리스인, 유대인)과 다양한 사회적 계층(부유층, 해방된 자, 노예)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도시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는 작은 산 아크로코린트의 기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서쪽의 항구 도시인 레카이온과 동쪽의 겐그레아 항구 사이의 6km 너비의 지협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약 50만 명이었던 고린도는 에게해와 서쪽 지중해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의 번창한 교차로였습니다. 그 전략적인 위치와 번성하는 경제 덕분에 동서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경 주석가 고든 피는 "바울 시대의 고린도는 고대 세계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였다"고 말합니다(고든 피, 고린도전서 주석, p. 3).

많은 문화와 종교가 이 로마 식민지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스 신 아폴로의 거대한 신전이 도시 위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 의학, 치유, 예언의 신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그리스 신전, 황제 숭배, 이집트와 아시아에서 온 신비 종교가 도시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아크로코린트 꼭대기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으며, 그곳은 신성한 매춘으로 유명했습니다. 고린도는 성적 문란함, 나이트클럽, 바 등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허용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즉, 마음)이 몸과 분리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즉, 마음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고린도 사람들이 안락사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캐나다에서도 같은 사고방식이 의료적 지원을 통한 죽음(MAID)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마가렛 코틀). 우리는 다시 고린도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불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포기하려던 순간에 밤의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행전 18:9-10). 이 말씀은 오늘날 메트로 밴쿠버에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울은 실제 도시 안에 있는 실제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그리스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에클레시아"는 모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식민지로, 로마 언어(라틴어), 로마적 사고방식, 로마의 이상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로마에 속한 것도 아니고, 부유한 후원자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나 특정 신학 그룹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장로 그룹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고린도전서 3:9).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구별되다" 또는 "성화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린도 신자들이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과 노력으로 성도가 되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성도입니다.

6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을 나열합니다. 그 목록에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 우상 숭배자, 탐욕스러운 자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씁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11).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에게”라고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과거형).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되었으며, 그들의 예배와 도덕적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교회의 성화된 구성원들이 그들의 예배, 공동체 생활,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경건한 가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상업, 법, 교육, 성, 결혼과 가정 등에서 말입니다. 그들의 가치는 주변 문화의 가치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했고, 우리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애보츠포드에 폰자비 목사인 아시시라는 20대의 젊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사람들은 세 권의 성경을 읽습니다... 먼저 그들은 여러분의 삶을 읽고, 그다음에 당신의 공동체를 읽으며, 그 후에 당신과 당신의 공동체를 인도하는 책을 읽을지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읽을 때, 혹은 우리의 교회 가족을 읽을 때, 그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다 보면 고린도 신자들이 자기중심적이고 분열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2c).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2.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도가 되는 것

바울만이 신성한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도 전 세계 교회와 함께 신성한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일만 할 자리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영성을 위한 자리도 없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주이시며 우리의 주이신"이라고 썼습니다. 바울과 소스데네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님이자 구세주라면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세례

- 당신은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명령하셨고, 그분이 축복하십니다. 사도행전 2:38)
- 당신은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유니폼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26-27)
- 당신은 자기 부인과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3-4)
-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과의 연합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19)

-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12-13)

세례는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지역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자 구세주라면 답은 간단합니다:

지역 교회 멤버

-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18, 에베소서 2:19-22;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과 함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0:23-25; 베드로전서 4:7-11)
- "우리는 서로의 지체입니다"라는 것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5; 에베소서 4:25; 가상 사회에서 우리는 상상을 벗어나 진짜로, 구체적인 교회를 이루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모이고 연합합니다)
- 신약에서의 서로에 대한 59가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2:10, 16; 14:19; 15:5, 7; 사랑, 돌봄, 섬김, 격려)
- 우리의 문화에 만연한 지나친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13; 에베소서 5:21; 빌립보서 2:3-4; 우리는 혼자, 자급자족, 하나님의 백성과 분리된 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 성숙하고 온전해지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16; 성숙하고 치유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넘어 다른 이들과의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Discovery 클래스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가족으로 등록하십시오.

고린도의 성도들은 매우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4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기회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로마, 빌립보, 데살로니가, 골로새,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위해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 가족, 우리 라이프 그룹, ILM 펠로우십, Discovery 클래스, 워십아트미니스트리 팀, 어린이 사역 팀, 돌봄 사역 등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저는 윌링던 교회 가족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신 가족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트로 밴쿠버에 있는 자매 교회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합니다.

- 4b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 5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 6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 7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의 위대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일을 기리며 감사하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5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들은 "모든 말과 모든 지식"으로 풍성해졌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이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선물들은 영적인 은사에 국한되지 않았지만, 확실히 그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을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모든 종류의 말, 모든 종류의 지식, 모든 종류의 영적 은사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받는 것

고린도라는 도시는 '모든 종류의 말 하기'(로고스)에서 설득의 기술(수사학), 논리적 사고(토론), 그리고 웅변(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의 종교 및 철학 학교들은 이러한 기술에 높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사실, 고린도는 노예에서 해방 노예, 엘리트로 사회적 지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 사람들에게 조언해 주는 전문적인 웅변가들에게는 좋은 타겟이었습니다. 요즘 자기 계발 전문가들이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흥미롭죠. 고린도 교회는 이 '말하기 기술' 목록에 설교, 가르침, 예언, 방언 등의 은사를 추 했습니다. 더 말하는 방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모든 종류의 지식'(그노시스)은 물질세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로마법, 그리스 철학, 종교 운동, 그리고 영적 신비에 대한 이해도 포함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 복음 메시지에 대한 이해와 지혜와 지식의 말씀도 추가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 지식, 영적 은사의 은사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지만, 그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서로에 대한 사랑이나 사랑의 봉사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말하기, 지식, 영적 은사로 축복받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사들은 남용될 수 있습니다:

- 수사학적 기술은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 지식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나누고,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 영적 은사의 남용은 영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 본성(육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 돌리고, 그것을 명예, 권력, 그리고 영향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 전반에 걸쳐 사랑을 말과 지식과 영적 은사보다 높였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8:1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13:1-2에서는

-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8에서는

- 8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결론에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전서 16:14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자기희생과 사랑의 봉사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제거하면, 우리는 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잔혹한 힘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제거하면, 우리는 쾌락주의(모두가 제약 없이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시대에 대한 논평입니다.

말, 지식, 그리고 영적 은사들은 큰 가치가 있지만, 그것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동안의 여정을 위한 일시적인 준비물에 불과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그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분을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7-8

7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8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계시의 영원한 보상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날을 갈망합니다!

여름 내내 저는 BBQ가 세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BBQ는 2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BBQ를 데크 위에서 굽다가, 프로판 탱크가 녹슨 바닥을 통해 떨어졌습니다(사진). 오래되어서 새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찾고 있던 브랜드는 세일을 거의 하지 않는데, 다행히도 버나비에 있는 지역 하드웨어 매장에서 세일 중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퇴근길에 매장에 들렀고, 정말 그 제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결제하러 가보니 가격이 더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유일한 단점은 내 BBQ가 매장에 배달되기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날에 다시 하드웨어 매장으로 갔습니다. 구매 증빙을 보여주고 점원이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BBQ가 아직 배송되지 않았고, 그 브랜드 모델의 BBQ는 매장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팔렸습니다!! 저는 실망했고, 환불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밤에 BBQ를 온라인으로 찾아보니, 그 BBQ가 다시 같은 하드웨어 매장에 뜬 겁니다!! 점원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전화를 걸기에는 이미 늦어서 교회가 끝난 후 매장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매장에 가는 길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세 번이나 마쳤으니, 흥분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매장에 도착해서 점원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매 증빙과 환불 내역을 보여주고, 제가 받은 정보와 온라인에서 발견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점원이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잠시 후(그동안 제 아내는 다른 물건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BBQ를 끌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당신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BBQ를 받았고(사진), 이것이 이 설교의 요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세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다가 우리가 원하던 것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쁘지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는 BBQ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날에 우리의 천국의 보상, 영원한 생명의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복음을 확증하고, 그것

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다면, 우리의 보상에 우리의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4.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지탱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실 날에 우리는 정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망받지 않고, 흠 없고, 아무 죄도 받지 않는 상태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영화, glorification)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의 이 일은 우리의 수사학적 능력이나 신학적 지식, 혹은 영적 은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고, 일관되며, 의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안식하세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결론으로, 3절의 축복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은 흔히 은혜와 평강, 즉 내적인 평안과 타인과의 조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윌링던 교회는 예수님과 무관하게 은혜나 평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주로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그분께 항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묵상 질문

1.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2.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과 함께 성도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 세례
 - 교회 회원 등록
 - 소그룹에 참여하기(라이프 그룹, 디스커버리, ILM 교제 모임 등)
 -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로 봉사하기
3.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준비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예: 누군가와 기도하기, 연결 및 탐구, 예수님 발견하기 등)